

복지 관련 부정·비리 등
제보 받습니다
☎ 062-971-7400

장흥군 대덕읍, '알콩달콩 썩떡데이' 운영

장흥군 대덕읍(읍장 김철호)은 14일 올해 두 번째로 (재)정남진장흥노인복지재단공모사업비로 경로당에 약떡, 조정 세트와 포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2019년 (재)정남진장흥노인복지재단의 공익사업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민·관으로 구성된 대덕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박종철)에서 진행하고 있다.

37%를 육박하는 노인인구를 고려하여 여름철 입맛이 없는 어르신들께 약효능이 있는 썩떡 조정 세트와 포도를 대덕

읍 노인이용시설 50개소에 지원한 것이다.

지난 7월 1회차 사업에는 썩떡 조정세트와 쇠고기 장조림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어르신들께 음식을 지원하게된 배경을 접하고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참여한 장흥표고식품(대표 박희정)으로부터 조정을 기탁받아 등록 경로당 49개소에 지원했다.

대덕읍에서는 앞으로 민관이 함께 협력하여 지역문제를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더욱 활성화



화시켜 복지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취약가구는 찾아가서 실정을 확인하

고, 누락된 서비스가 없도록 촘촘하고 섬세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단체 “현대판 고려장 멈춰라”...농성 돌입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4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사옥 로비를 점거하고 릴레이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4일 사회보장위원회가 있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사옥 로비를 점거하고 릴레이 단식농성에 나섰다.

전장연은 이날 오후 2시쯤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활동지원 연령을 만 65세로 제한하는 것은 현대판 고려장이나 마찬가지

지”라며 연령 제한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전장연에 따르면 이날부터 최중증지체 장애인 송용현씨와 박명애 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단식에 돌입한다. 이들은 ‘단식자’라고 적힌 종이를 목에 걸고 기자회견에 나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국민연금공단 사옥 로비 점거

“24시간 받던 서비스 4시간으로...시설 들어가라는 이야기”

송씨는 “현재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노인요양으로 넘어가면 4시간만 받을 수 있다”며 “사실상 시설에 들어가라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8년 정도 시설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시설이 어떤지 잘 안다”며 한동안 말을 잊지 못하던 송씨는 “시설에 가느니 그냥 여기서 죽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

박 대표도 “장애인이지만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정말 약각같이 활동권 투쟁을 해왔다”며 “그렇게 평생을 싸워왔는데, 65세에 고려장 당할 생각을 하면 참담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전장연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지원 서비스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활동보조인이 장애인의 일상 활동을 최대 하루 24시간 지원하며, 보건복지부 장

애인정책 예산 중 규모가 가장 크고, 장애인과 그 가족의 만족도도 높다.

전장연에 따르면 활동지원을 받던 장애인은 만 65세가 되는 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라 수급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 후 장기요양 등급이 나오면 장애인 필요와 무관하게 활동지원은 중단되고 장기요양서비스만 받게 된다.

전장연은 “장애인이면서 노인이면 서비스를 더 필요로 하는 사람인데, 현 제도는 마치 장애인이 노인으로 둔갑하는 것처럼 서비스를 강요하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복지부와 면담도 해보고, 국회도 찾아가고, 인권위에 진정도 제기하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며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여기 와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인 활동보조서비스 보장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1

순천대, 전라남도치매센터와 네트워크 협력체계 구축 협약 체결

순천대학교(총장 고영진) 산학협력단은 최근 산학협력단에서 전라남도광역치매센터와 지역 사회 네트워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가치매관리 정책을 지역실정에 맞게 확대 보급하고자 2015년에 설립된 전라남도광역치매센터(센터장 조은미)는 고령인구 비율과 치매유병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라남도 치매환자의 치료, 돌봄 기관 서비스 기술지원 및 종사 인력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양 기관은 ▲협동연구 수행 및 치매관련 사업의 정보 공유를 통한 공동사업 추진, ▲연구 및 기술인력의 상호교류, ▲치매지원사업의 업무교류 및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의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치매

관련 연구를 강화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기로 했다.

곽준섭 산학협력단장은 “대학과 센터간 치매 관련 교육사업, 연구사업, 전문인력양성 등 다양한 치매관련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치매유병률을 낮추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야호센터
월곡동 청소년문화의집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안길 5

광산구